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1. 03. 28. (나해) 제2261호

대구주보



가님의 집
동명성당
가은 냄새가
2020.9
+Bernard- 1-14-1-1-1

동명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입당식복음 마르 11,1-10 **제1독서** 이사 50,4-7 **회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르 14,1-15,47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생각 하나



다산본당 주임 | 김충남 실베리오 신부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방탄소년단(BTS)처럼,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 영화처럼, 유노님(방송인 유재석)처럼 오실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을 여는 청소부처럼, 오지를 마다하지 않는 집배원처럼, 부모가 떠나고 혼자인 손주를 위해 굶은 몸으로 밥을 짓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고단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뵈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뵈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이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길이 사람이 가야 할 본래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세상에 있는 길들은 자신을 조금 가려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그런 점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도 오히려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도 ‘세상의 길’처럼 자신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금년에도 자신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을 ‘십자가의 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는 철이 들면 타인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리는 가면을 쓰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가면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표정을 타인에게 맞춰 주는, 그런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혹시라도 세상에서 썼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솔직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필문**

줄여야 산다

교구 문화홍보국

33살 김수지(가칭)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시원한 페트병 생수로 목을 축입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된 샌드위치와 바나나우유를 사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음식이 도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 플라스틱 수저와 젓가락까지 식사를 마치자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일회용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한잔합니다. 반나절만에 꽤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무려 132.7kg, 그중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35.2%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 플라스틱의 발명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기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하게 소비되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폐기물의 범람과 해양오염 문제 등을 일으키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세상과 많은 인간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 근심거리가 됩니다.”(『찬미받으소서』 18항)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대부분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848톤으로 2019년 734톤에 비해 무려 15.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조금은 불편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끝에 나오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나 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효율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지난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제안한 이웃사랑 활동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9가지 실천방법을 우리도 함께 실천하여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

1. 장바구니를 사용합니다.	2. 과대포장보다 단순포장된 제품을 구입합니다.
3.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4. 다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합니다.
5. 도시락 가방을 활용해 배달합니다.	6. 빨대나 일회용수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일회용비닐 사용을 줄입니다.	8. 개인컵 사용 습관을 기릅니다.
9. 재활용을 철저히 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남산본당 | 서성옥 집마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중략)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0-37)

세례 받은 지 1년쯤 되었을 때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접하자 나도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기 전 시골 고향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침 동네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한쪽 눈이 흰자위만 있고 검은 눈동자가 없이 실명이 된 채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혼자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지게를 지고 팔죽 같은 땀을 흘리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의 낡은 옷은 언제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수줍음도 많았던 저는 어디서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매일 지나치던 할아버지를 막아서고는 잠깐만 쉬어가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힘들어서인지 제 말에 순순히 지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마침 저의 집 앞에는 개인 우물이 있던 터라 할아버지에게 옷을 벗으시라 하고 우물물을 퍼서 등에 부으며 땀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여름 내내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얼른 나가서 등목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언니는 할아버지가 안돼 보이긴 하지만 과년한 처녀가 외간 남정네의 옷을 벗기고 등목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난하고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가씨는 천국에 갈 거예요.”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 서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모든 이가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웃이 되어드렸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필문**



※ 본 내용은 2021년 대구주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윤점혜(尹占惠) 아가타는 1778년경 경기도에서 태어나 양근의 한감개(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살았으며, 일찍이 어머니 이씨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795년에 순교한 윤유일 바오로는 그의 사촌 오빠이고, 1801년에 순교한 윤운혜 루치아(혹은 마르타)는 그의 동생이다.

아가타는 일찍부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동정 생활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풍속에서는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몰래 집을 떠날 결심을 하고는 어머니가 마련해 둔 혼수 옷감으로 남장을 지어 숨겨둔 뒤에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어느 날 남장을 하고 사촌오빠 바오로의 집으로 가서 숨었다. 얼마 후 아가타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갔는데,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질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꾀뚫하게 참아냈다.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가타는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결혼한 과부처럼 행세하며 동정을 지켜나갔으며, 2년 뒤에는 주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가타는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의 집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였다. 또 주 신부의 명에 따라 동정녀 공동체를 만들고, 회장으로 임명되어 다른 동정녀들을 가르쳤다. 이후 그녀는 교리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극기와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에 열중하여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연도를 자주 바쳤으며, 아가타 성녀와 같이 순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윤점혜 아가타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포도청과 형조에서 갖가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밀고와 배교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박해자들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동시에 그녀의 고향인 양근으로 압송하여 처형토록 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아가타는 양근으로 이송되어 그곳 감옥에 수감되었다. 당시 그 감옥에는 여자 교우 한 명이 함께 갇혀 있었는데, 훗날 그녀는 아가타에 대해 증언하기를 “윤점혜는 말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사형을 앞둔 사람 같지 않고, 태연자약하여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았다.”라고 전하였다.

아가타는 1801년 7월 4일(음력 5월 24일)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순교 당시 그녀의 목에서 흐른 피가 우윳빛이 나는 흰색이었다고 한다. 그에 앞서 그녀가 형조에서 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10년 동안이나 깊이 빠져 마음으로 굳게 믿고 깊이 맹세하였으니, 비록 형벌 아래 죽을지라도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윤점혜 아가타
(? ~ 1801년)

창작성가 공모

2021. 3. 19. ~ 9. 30.

공모부문 :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1명) 500만 원
최우수상(2명) 300만 원
우수상(2명) 200만 원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aegu-archdiocese.or.kr)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에 비추어 보기 I

성경에는 가정과 출산, 사랑 이야기와 가정의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8항). 그 가정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곧 자기들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초의 하느님 계획을 구현합니다(9항). 창세기의 장엄한 첫 두 장은 우리에게 인간 부부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부부, 곧 "남자와 여자"로 언급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초월성은 보존되면서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 부부의 출산은 살아있고 효과적인 "하느님 모습", 곧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가시적 표징입니다(10항).



우리 대구대교구민 모두가 다 함께

박성규 엘리시오

부디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시길...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난 3월 14일
선종하신
故 이윤희 바울로
대주교님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9일(월) 10:30 범어성당	-	-
-----------------	----------------------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4.25(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korvocation@columban.or.kr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납수단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는 기적 같은 감동!!

영화 <부활> 3월 26일(금) 재개봉

故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부활>이
2021년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재개봉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대구 상영관 : CGV 아카데미, CGV 스타디움
- ※ 자세한 상영시간은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8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남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운창고·고추건조기
합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제주성지 6곳 39,000원
(주)미카엘여행사
제주성지 순환버스 매일 운행
2명부터 출발 / 추지도 59,000원
제주성지순례 3일
4.23(금)~4.25(일) 5.4(화)~5.6(목)
5.17(월)~5.20(목) 5.31(월)~6.2(수)
www.michaeltour.co.kr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
2010년 3월 29일
- 조차성(바오로) 신부
1929년 4월 1일
- 서영민(알렉산델) 신부
2014년 4월 2일
-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2013년 4월 2일

교육 | 모집

전인병원 전시회 참여작가 모집

2022년 전인병원에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전시기간: 한 달 / 전시비용: 무료
현수막 배너 지원
문의: 670-5882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3.29(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5차: 4.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성모솔숲마을 모집

자연치유가 필요한 암 환자와 영적힐링을 원하시는 피조자들의 쉼터, 성모솔숲마을은 소나무 숲속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힐링공간입니다.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봉사자 모집

대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수자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253-1401

바오로딸_벵커감상실

벵커 속 영화 감상실
일시: 4.7(수) 18:00
장소: 바오로딸 세실리아홀
대상: 청년 누구나
문의: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채용 | 안내

수성성당 사무장 채용

나이: 30~50대 초반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수성성당, 742-022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연(도미니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마스크(의약외품) 100장 **KF94(국 내 산)** 35,000원
비말AD 덴탈 100장 10,000원
대표 장 중 화(분도)
분도상사 053-425-4701 010-3537-5559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출하게 허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속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공공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웅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근(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건강검진은 **집인병원**
위·대장 내시경 5대암검진 일반검진
I 대표전화 | 1688-7667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